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 [빌립보서 4:10-13]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당신은 자족하는 사람인가요? 자족함의 기본적 정의는 "평온한 행복 또는 만족함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소유했던 뜻입니까?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족했습니다. 자족은 오직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족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삶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특권을 받았습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영원함.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자의 주님으로 아는 고상함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족함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족함은 우리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때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15)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8-10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프레데릭 코에닉(Frederick Koenig)은 "우리는 행복이 우리가 뭔가를 얻은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압도하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풍요와 빈곤은 모두 상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하나는 온도를 측정하고 다른 하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하나는 온도에 의해 제어되고, 다른 하나는 온도를 제어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로 인해 또 무엇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까? 누가 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줍니까? 우리의 온도는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삶의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삶의 일들을 제자리에 놓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재만이 유일하게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함은 선물이며 또한 배워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에 만족하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고난,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모멸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9-10). 자족함의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분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알약이나 짧은 세미나로 단번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학교에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삶에 주어진 어떤 인생수업도 마다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학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로부터 시작해 모든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들이 유혹, 시련, 박해 그리고 성공 등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삶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 분은 우리를 위해 그 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 그 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오늘 설교본문 13절은 최고의 절정입니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하나님께 감당치 못할 큰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큰 상황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